

“인사동 차 문화공간 찾아가 볼까” 차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인사동에는 30여 곳의 차 문화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점에서는 말 그대로 ‘차 한 잔’ 마시는 것 외에 문화공연을 보거나 차 관련 정보를 얻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최근 문을 연 ‘전통선차연구소’와 차 문화 ‘휴이랑-효월과 문화유산이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차집’이 아닌, 인사동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차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옛 거리 풍경속 茶 한잔 어때!



우리 선차(禪茶) 문화의 맥을 이을 기고 역할을 해나갈 한국전통선차연구소 이곳에서는 다양한 차 상품과 다서들을 만날 수 있다.



공연 무대와 인터넷 시설 등을 갖추고 차 관련 문화공연을 펼쳐나갈 ‘휴이랑’ 내부 모습. 주말마다 차를 마시며 공연도 즐길 수 있다.

“한국 선차 종합안내센터 역할 기대”

한국전통선차연구소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불가(佛家)에서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차문화에 묻혀 정작 우리의 ‘선차(禪茶)’ 문화는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차 문화의 원류를 밝혀내고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연구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동방차문화연구소 박희준 소장은 최근 인사동에 국내 최초의 차 전문 서점 ‘다유락’과 한국전통선차연구소를 개원하고 ‘선차 문화 알리기’를 자임하고 나섰다.

인사동에 마련된 연구소도 그 이름이 주는 딱딱한 대신 아늑하고 푸근하기 그 지었다. 1층에서는 다양한 차와 향을 만날 수 있고, 2-3층에서는 박 소장이 직접 따듯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선차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 사이에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차 생활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자리를 다잡는 것이죠. 제가 하게 될 연구도 오늘날 불가의 생활규범 속에서 차의 정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복원해 낸 발우를 이용한 차 음용법인 ‘운수선차(雲水禪茶)’와 ‘일완다례(一碗茶禮)’를 중국에서 발표한 것도 우리 선차 문화 세계화를 위한 행보의 시작인 셈이다.

지난 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차 관련 서적을 수집하며 우리 차문화의 ‘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는 박 소장. 그는 “‘우리 차를 마시자’며 시작된 70-80년대 차 문화 운동의 초발심으로 돌아 가야한다”며 “생활 속에 차가 깊이 자리 잡는 것이 차의 정신과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이다”고 강조한다. (02)723-8155

차와 문화가 공존하는 편안한 쉼터

휴이랑-효월과 문화유산이 만난 사람들

지난 9월 1일 문을 연 ‘휴이랑-효월과 문화유산이 만난 사람들(이하 휴이랑)’은 효월수제차대표 이기영과 (주)씨피엔문화재방송대표이사 구지영이 마련한 차 문화 공간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어느 전통차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다탁(茶卓)과 소박한 다기, 하회탈과 장구 같은 전통적인 소품, 외국인들을 위한 테이블 등으로 꾸며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휴이랑’만의 특징을 금세 발견할 수 있다. 다례시연이나 차 문화공연을 할 수 있게 마련된 무대와 컴퓨터, 빔프로젝트 같은 시설이 그것이다. ‘휴이랑’은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매주 한 번 씩 문화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휴이랑’의 자체 공연 외에, 차 관련 단체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공연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차를 마시며 차분한 마음으로 책을 읽거나 문화에 대한 정보도 나누며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는 구지영 대표는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 그 중에서도 차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한다.

효월수제차의 녹차와 백전차, 매화차를 비롯해 ‘휴이랑’이 직접 만든 수정과와 구절초, 송파밀수 등을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앞으로 ‘휴이랑’은 차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의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차 한 잔에 문화공연을 즐기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02)736-6076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우리 사찰 차 모임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차교육 통한 문화포교에 진력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회원들이 8월 29일 열린 칠석예술제에서 부처님께 차를 올리고 있다.

매월 양력 초하루,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에 가면 다도시연이 펼쳐진다. 문화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도원 스님의 취임 이후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박만옥) 회원들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그동안 엽불선차, 접빈다례, 말차시연, 연차 시연 등으로 차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38회

차를 다려 헌다하고 육백공양물을 준비했으며 최근에는 법회 날마다 차집을 운영하며 차와 차문화 보급에 팔을 걷었다. 이 밖에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위한 다도 강의, 사랑대사 열반제 헌다 등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의 활동 영역은 날로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활동과 비례해 다도 교

법회·템플스테이 등 행사 때 헌다 및 다도 강의

째를 맞은 9월 1일에는 지난 8월 29일 열렸던 칠석예술제에 선보였던 헌다 시연을 다시 열어 칠석예술제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의 관심을 모았다.

다도 시연이 끝난 뒤엔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위한 차 시음회도 연다. 처음엔 차 맛을 몰라 마시기를 꺼려했던 노보살들도 이제는 차의 깊은 맛과 향을 알아 이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법회 때마다 차의 효능과 차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도원 스님의 차 사랑도 큰 몫을 했고 차문화연구보존회 70여명 회원의 노력도 남달랐다.

큰 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이른 새벽 짙게 와서 부처님 전에 올릴

속도 심화되고 있다. 신인회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강육회 선생의 강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회원들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1년 과정의 삼광다도대학을 열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전통차 예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차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으로 한층 더 성숙된 다인(茶人)으로 거듭나게 된다.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의 김경남 부회장과 조물련 총무를 비롯한 회원들의 각오도 새롭다. “각박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은근한 차 맛을 일러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겁니다.”

인터뷰 박만옥 회장

차의 현대화·대중화 위해 노력

“삼광사 다도모임이 다른 모임의 모범이 되도록 우리 전통차 보존과 일반차, 중국차 연구와 배움에 힘쓰겠습니다.”

박 회장은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의 수장을 맡아오고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삼광다도대학 활성화와 더불어 일반차, 중국차 특강을 구상 중이다.

또한 “차를 우리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라고 강조하며 차문화 보급뿐 아니라 기도주간의 철학기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다. 다도와 수행의 합일을 꿈꾸는 회원들의 정진덕에 차의 현대화, 대중화가 한발 앞당겨지고 있다. (051)808-7111 천미희 기자

‘차 품평대회’, 차문화 모임으로



지난 7월 17-1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가 차문화 교류 모임으로 거듭났다. (사진) 차 품평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여연은)는 9월 8일 서울 운현궁에서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 사후 행사’를 개최하고, 심사위원단과 수상자들을 아우르는 차 문화 모임을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장인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조직위원장 여연 스님(일지암 암주), 심사위원장 정영숙 교수(부산대)를 비롯해 우수품질상을 수상한 봉황다원 허정홍 대표와 우수상 수상자인 천

보다원 문평식 대표, 품질상 수상자인 예전농원 전상연 대표, 다우제다 이승관 대표, 조태연가 조성호 대표, 햇차원 이기남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차 품평대회”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차인들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다업체와 연구소, 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차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차 품평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수상자들에게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기가 있는 궁합다기 전시회’

차 판매점 ‘노블티(Noble Tea, 대표 유병주)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가네트홀에서 ‘노블티 초청 기가 있는 궁합다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국 자사호(紫沙壺)를 비롯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기 100여 점의 선 보인다. (032)527-4414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볼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악성비염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주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날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體力를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觀音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당(심마나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중, 자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